



영원한 생명 VS 영원한 젊음

오늘 지내는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서부 경남 지역 신자들에게는 '교구의 날' 내지는 '본당의 날'과 거의 동격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살아있네!" 어느 영화 중 건달 역할의 배우가 내뱉은 말이다. 신학적으로는 우선 부활하신 주님께 적용될 말이 여기서는 그저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느님"(마태 22,32)께서 '쭈글쭈글 늙은이들의 하느님도 되시는가? 육체는 '감옥'인가 아니면 영원한 젊음의 표상인가? 늙음은 젊음을 전제로 하는가? 젊음과는 어떤 관계에 서 있는가?

성경 내 '늙음 속에 젊음을 간직한' 제일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팔십이 되어서야 백성을 구하라는 하느님 부르심을 받은 모세(탈출 7,7)를 제외하고는 노년기에 신앙의 모험을 감행한 유일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75세에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 모험 길에 오르고 175세에 죽기까지 100년에 걸쳐 계속 순례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소유하던 땅을 땅에 대한 약속과 맞바꾸는 모험은 철없는 '젊은이'나 할 짓이다. 장 루이 스카Jean-Louis Ska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그리스 세계의 '길 떠나는 인간homo viator'의 전형인 오디세우스와 비교한다. 오디세우스가 10년에 걸친 항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반면,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돌아감이 없는 완전한 떠남'을 수행한 것이다. 그리스인들에게 소명은 결국, 고향, 집으로의 귀환이 암시하듯,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느님이라는 절대타자, 곧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만 했다. 자신에게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 되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 그렇게 젊음을 유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2019.4.2.)"라는 문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리스도를 오디세우스와 오르페우스를 상대로 비교하며, 인간은 그저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실존적/신학적 젊음을 간직해야 승리자로 살아있는 것이다. 고향 이타카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중 하나인 '사이렌(그리스어로 시레네)'의 노랫소리에 홀려 난파될 위험에 처한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동료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을 돛대에 매단 채 홀로 사이렌 노랫소리를 듣는다.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몸을 돛대에 묶었기에 무사히 해협을 통과해 살아남는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하면, 이렇게 살아남은 오디세우스를 능가하여 그리스도의 전형이 되는 인물은 오르페우스이다. '사이렌'의 소리를 감내할 것만 아니라, 오르페우스가 하데스를 압도하는 노래를 불렀듯, 그것을 압도하여 능가할 '새로운 노래(묵시 14,3)'를 부를 때라야 진정한 승리에 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노래는 "시온산 위에 어린양과 함께 서 있는 십사만 사천 명"(14,1)이 부르는 것이다.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있는 자들의 노래이다. 새 노래(그리스어로 '오데 카이네')라는 표현에서 새롭다는 의미의 '카이네'는 없던 새로움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새로움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새 노래를 부르는 복음 내 대표적 인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꼽는다. 사랑받는 제자는 주님의 무덤에 먼저 도달했지만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에게 더 멀리 갈 수 있게 '새 노래'를 들려주고 그렇게 사라진다(요한 20,8 참조). 베드로가 젊은 후세대를 의미한다면, 사랑받는 제자는 먼저 왔지만, 여전히 젊은 이전 세대를 가리킨다.

먼저 와 햇불을 손에 들고서 '새 노래'는커녕 '라때는 말이야'를 연신 반복한다면 젊음과는 무관한, 아니 젊음에 방해되는 그저 숨만 붙어있는 고집스러운 늙은이일 뿐이다. 더 늦게 온 다음 세대가 자기들보다 더 낫기를 희망하며 여태껏 자기 삶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새로운 것들을 노래로 들려주며 더 멀리 가도록 격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계속되는 젊음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나는 '늙음 속에 젊음을 간직하는가? 지금 어떤 '새 노래'를 부르는가? 아님, 'TV조선'의 구린 '트로트'만 연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진수 스테파노 신부 | 거창본당 주임

주일 진레

- 제 1 독 서 지혜 12,13,16-19
-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제 2 독 서 로마 8,26-27
- 복 음 마태 13,24-43 또는 13,24-30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 미칩니다”(루카 1,5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 미칩니다.”(루카 1,50)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주제인 이 말씀은, 우리가 젊은 마리아와 나이 든 친척 엘리사벳 사이의 복된 만남(루카 1,39-56 참조)을 되새겨보게 해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이전 년 뒤에도 우리가 날마다 바치는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이 말을 천주의 성모님께 드립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루카 1,42) 일찍이 마리아께 내려오신 성령께서 하느님의 자비는 대대로 미친다고 선포하는 마니피캇의 응답을 마리아에게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또한 같은 성령께서 서로 다른 세대 곧 조부모와 손주,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모든 풍성한 만남을 축복하고 그 만남에 동반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한 것처럼 젊은이들이 노인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노인들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불행하게도 너무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가 노인을 유기하거나 그들을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올해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세계청년대회와 가까운 날에 거행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 거행 모두 우리에게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을 위하여 길을 나선 ‘서두름’(루카 1,39 참조)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젊은이와 노인을 잇는 유대에 관하여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노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기억을 보존하도록 또 크나큰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아름다움을 인식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확신하십니다. 젊은이에게 노인과의 우정은 삶을 현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또 모든 일이 자신의 역량에만 달려 있지 않음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노인에게 젊은이의 존재는 자기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꿈도 성취되리라는 희망을 열어 줍니다.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과 주님의 자비가 대대로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인식은, 우리가 혼자서는 자신을 구원하기는커녕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하느님의 개입은 언제나 함께 있음에서, 백성의 역사 안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충실하시어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경이로움을 이루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한 마리아는 몸소 마니피캇을 통하여 이 사실을 노래하였습니다(루카 1,51-55 참조).

하느님의 활동 방식을 더욱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가장 위대한 희망과 꿈은 일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대화와 관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자리, 돈과 재산,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방식을 보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계획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모든 세대를 포용하며 연결시킵니다. 그 사랑의 계획은 우리 존재보다 더 크지만, 우리 각자를 포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매 순간 우리를 부릅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가상 현실이 우리를 가두어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이 빠르게 흘러가는 현재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신체적 활력 저하에 연연하지 않고 놓친 기회를 후회로 곱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앞을 바라봅시다! 타성과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를 세세대대로 벗어나게 해 주시는 하느님 은총으로 우리가 빛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그들에게도 또 온 교회에도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표징입니다. 저는 이날을 경축하고 또 젊은이와 노인 사이의 기쁘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로 삼도록 모든 이를, 교구와 본당, 단체와 공동체들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만남을 준비하거나 각자의 나라에서 그 거행을 준비하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조부모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찾아뵙시오! 그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 줄 것이며 여러분은 그 만남의 축복을 마음속에 품고 갈 것입니다. 노인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세계청년대회를 거행하려는 청년들을 동반하십시오. 그 젊은이들은 노인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느님 응답이고, 여러분이 부린 모든 씨앗의 열매이며,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의 창조적인 힘으로 그 백성을 언제나 다시 젊게 해 주신다는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조부모와 노인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포용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 가득 채우기를 빕니다. 큰 사랑을 담아 여러분께 저의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저를 위한 기도를 청합니다.

프란치스코



누구나 삶은 처음이다

이현숙 아마따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날줄, 분노와 슬픔이란 씨줄로 짜인 한 필의 피륙이다. 그 안에는 낙동강 삼각주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단언컨대,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있어도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친 세파에 부대끼며 각자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초짜 인생들이다. 그런데 필생의 과업인 양 생활 전선에 오롯이 매달리느라 그 귀한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낮아져야 높아지듯 물질적 손해를 감수할 때 나를 위한 치유의 시간도 생겨난다. 사람 마음이 또한 간사하다. 예를 들어 고생고생해서 소원하던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고도 기쁨은 잠깐이다. 목표를 이룬 순간 더 넓은 집으로 옮겨 앉고 싶은 새로운 꿈이 싹튼 때문이다.

길어봤자 백 년 인생이건만 시도 때도 없이 출렁이는 욕망과 고뇌로 말미암아 마치 천년의 근심을 끌어안은 듯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 싶다. 남의 마음도 아닌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갈팡질팡 아근바근하다니 내담없이 어찌 이리 미욱한가. 하루치 고민은 양념치킨과 프라이드치킨, 짬뽕과 자장면, '찍먹'과 '부먹'을 두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족하다. 인생 소풍길이 그 이상 심각할 필요가 있을까.

자동차는 타이어가 펑크 나면 스페어타이어라도 있다. 그러나 인생은 스페어도 없고 어느 누가 내 삶을 대신 책임져 줄 수도 없다. 그러니 한 번뿐인 삶을 후회 없이 살아 보겠노라 욕망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꿀맛을 한 번 본 벌은 꿀단지 속으로 점점 파고들다가 결국 꿀에 빠져 죽는다. 인간이라고 어리석은 벌 신세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여하튼 심신이 건잡을 수 없이 파헤해진 뒤에야 비로소 질주를 멈춘다. 맹목적이리만큼 치열했던 지난날의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순간이기도 하다. 만시지탄이나마 교훈도 얻고 영육 간의 건강도 되찾으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같은 해피 엔딩이 흔한 편은 아니다.

인생 비법이 무어냐 묻지를 마라. 마음이 편하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다. 사실 열 번 울고 한 번 웃는 게 인생이다. 아픈 기억은 잊고 웃던 일만 기억한다면 절반의 성공이다. 지나간 아픔들을 웃으며 말할 수 있고,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까지도 용서한다면 온전한 성공이다. 한편, 극한 환경에서 자란 꽃이 향기가 짙듯 시련을 잘 극복한 사람은 인생의 깊이가 다르다. 길을 걷다가 발끝에 채인 돌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기는 사람에게 시련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부자가 부럽지 않으면 가난을 겁낼 이유가 없다.

그나저나 세상살이 초보로서 실수가 잦은 것은 그렇다 치자. 뒷감당을 으레 주님께 떠넘기는 건 무슨 경우인가. 애먼 주님께 민원 청구는 자제하고 눈앞의 현상에 휘둘리지 않을 통찰력, 중요한 일과 시달지 않은 일을 가려낼 분별력을 주시길 기다려 보자.

월남동본당 자비의 모후 Pr. 3,000차 기념 주회



월남동본당(주임: 박창균 시메온 신부) 착한 의견의 어머니 Cu.(단장: 이용길 스테파노) 소속 자비의 모후 Pr.(단장: 이란 제노베파)은 7월 7일 3,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자비의 모후 Pr.은 1965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월남동성당에서 가장 오래된 Pr.이며, 현재 10명의 여성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사제, 수도자 등 본당 레지오 단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축하와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박창균 신부는 3,000차 주회를 맞이한 자비의 모후 Pr. 단원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하며, 새로운 4,000차를 향하여 레지오 기본정신에 충실한 단원이 되자고 전하였다.



보석과 감초들이 있어 주님의 집 지키는 구암동성당

조정자 이사벨라

여기가 빛이다

1986년, 86아시아게임에 이어 88올림픽을 맞이하느라 전국이 들쭉날쭉할 때 그 아성에 걸맞은 구암동성당이 봉헌된다. 당시 구암동은 신 주거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철도역과 시외버스터미널과도 가까워 주거지로서는 최적지로 손꼽혔다. 특히 마산과 창원에 이르는 전국의 고속버스가 반드시 동마산IC를 거치는데 신호 대기를 하는 동안 초입에 구암동성당이 시선을 사로잡아 방문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구암동성당은 서양의 중세 성당에서 사용하던 아치라는 건축 방식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모더니즘 형식이다. 건물 밖 대형 십자가는 전통적인 형식의 틀을 벗어나 콘크리트 기둥을 아치형 입면과 연결해 진입부터 경건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1980년대 성당 건축물로서는 대단한 파격이다.

찬란함 속으로

성당 안으로 들어서면 중앙홀 넓은 벽면에 신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무 블록에 새겨 바둑판처럼 끼워 놓았다. 남영철 신부가 사목하는 동안 손수 제작하였다고 하는데, 신자들을 향한 사제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게 한다. 계단을 타고 2층 성전에 들어서면 마치 성 베드로 성전을 방불케 하는 높은 높이와 이에 걸맞은 십자가상이 공간을 압도한다. 넓은 벽면에 십자가의 성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다양한 옵션을 두고 고민했을 것이다. 수직성은 곧 성스러움의 상징이다. 성전 내부는 온통 수직이다. 그 수직 속에서 십자가의 수직이 돋보이는 것은 벽면의 질감이다. 좌우 창은 격자 모양의 나무를 덧대어 기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밝기를 조정했다. 오후 4시, 수녀님 두 분의 성무일도를 바치는 모습이 성전의 경건함을 자아낸다.

지혜의 눈, 현실을 직면한다

인근에 있는 주교좌성당이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제약이 많았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까이 구암동성당을 짓게 된 셈이다. 성전 규모가 커서 전 좌석이 꽉 차면 무려 천 명을 수용할 수 있기에 사제 서품식과 몬시뇰 서임식 등 교구 행사를 종종 거행하였다. 모태 본당인 양덕동성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마산교구의 대들보로 쑥쑥 자란 구암동성당은 한때 복사만 무려 60여 명이었다. 그러다가 시대의 직격탄을 맞았다. 수출자유지역과 한일합섬이 빠져나가고 주거시설이 주택에서 아파트로 전환되면서 선호도도 대로변보다는 산과 바다가 밀접한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 주택은 점점 빈집이 늘어나고 재건축도 번번이 심사에서 무산되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의 대부분이 주택 거주자들이다. 누구보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신자들은 내적 신앙에 코드를 맞춰 외적인 열세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느리게 더 느리게

설립 25주년이 되던 해 신자들은 매월 교무금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사제와 힘을 모아 성전 보수 비용을 마련했다. 성전 바닥을 전부 교체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보조 작업과 청소, 마무리는 전 신자들이 참여해 인건비를 줄였다. 남은 비용으로 신자들의 오랜 꿈인 성모동산을 짓기 위한 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2016년은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일 년을 알차게 보내려고 힘썼다. 기념기도문을 만들어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영적쇄신을 꾀했다. 특히 본당을 거쳐 간 사제 여섯 분을 매일 한 분씩 초청하여 특강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큰 규모로 바자회도 열었고, 가수 김정식을 초빙하여 영성음악의 밤을 개최했다. 기념미사로 마무리하면서 본당 승합차2호도 마련하는 결실을 보았으며, 성모동산 조성을 위한 집 한 채를 더 구입했다. 올해 설립 37년 만에 본당 출신 1호 사제를 탄생시키기 위한 전신자의 기도가 결실을 맺었다. 이창범 라자로 새 신부에게 무한 사랑을 보냈다. 신자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사제와 호흡을 맞추며 때로는 가파르게 때로는 느슨하게 신앙의 줄기를 키워오고 있다.



조용한 위력, 짝 찬 양심

코로나 팬데믹은 사제와 신자들의 시험대였다. 여느 때보다 사제의 통찰이 필요하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깊이 스며들도록 하는 기술이 요구되었다. 박태정 토마스 아퀴나스 주임 신부는 환기가 잘되는 외부에 임시 고해소를 만들어 넉넉한 시간을 두고, 신자들을 기다렸다. 깊은 면담을 통해 신자들과 서로 교감하고 '잘한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복돋우며 단 한 명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성을 쏟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다독이며 모두에게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 박태정 신부의 사목이었고, 신자들은 이 무한한 선처에 양심으로 화답했다.

수도자들은 올해도 첫영성체에 정성을 쏟았다. 신앙의 잔뿌리가 형성되는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기에 대상자가 적어 위축되는 것을 막고 재미와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가 파견된 양덕동성당과 창녕성당의 어린이들을 모아 공동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매주 토요일은 교리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순교성지나 공소를 순례하며 6개월 과정을 진행했다. 주일학교도 성소 주일에 왜관수도원 방문을 하는 등, 비록 인원은 적지만 내용은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이준홍 요한 사목회장은 구암동성당에는 보석과 감초가 있다고 자랑했다. 함께 자리한 몇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맞장구쳤다. 보석과 감초의 힘을 발휘하여, 꼭 '성모동산 조성'이란 본당 신자들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 그에 필요한 집 두 채는 이미 사들였고, 계획한 대로 한 채 더 이루어지길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교구장 서리 동정

창원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축복식

일시: 7월 27일(목) 11:00

푸르실로 강의

일시: 7월 28일(금)

푸르실로 미사

일시: 7월 30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정)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티 가는 길(도보순례)

일시 및 장소: 4차-10월 31일(화)~11월 2일(목)
대구교포성베네딕도수녀원
5차-11월 28일(화)~30일(목)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피정의집
참가비: 2박 3일(25만 원)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강좌-9월 개강

내용: 서학과 박해-소진형 박사
·성경대학: 공관복음(7회 강의)-송봉모 신부
·성인들의 꿈이 알려주는 10가지 비전-홍기령 교수
·구약성경 아카데미:지혜서-주원준 박사
·기도란 무엇인가-이규성 신부
기간: 각 10~12주/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내용: 영성과 철학상담-박병준 신부, 홍경자 교수
실시간 줌(ZOOM)강좌-매주 화 19:00~21:00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or.kr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
(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교구/본당

성경교육 봉사자 양성팀 교안 발표

일시: 7월 24일(월)/ 장소: 교구청

성경교육 봉사자 교육반 신약 통독피정

일시: 7월 28일(금)~30일(주일) 2박 3일
장소: 고성 성심의 집

교구 성경사목부 성경교육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통영, 거제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7월 27일(목)까지(면담 후 봉사자 교육)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8월 수어미사는 없습니다.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기 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일시: 8월 4일~6일, 9월 22일~24일
2박 3일: 시작-(금) 17:00, 마침-(주일) 15:00
장소: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문의: 예수마음선교수녀회 031·321·9054, 010·4154·0885

4050 신앙대회

일시: 8월 20일(주일) 10:00~17:00
장소: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대경당(부산)
주최: ICPE 선교회,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
문의: 010·2289·6150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7월 24일(월) 19:00	중앙동성당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 1,23)	김종원 히지노 신부(안월동본당 주임)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정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스킨 100ml, 힐데 바디 크림 100ml, 힐데 샴푸 400ml, 힐데 비누 60g, 힐데 크림 50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11월 4일 출발 아말피&사칠리아 트레킹 순례 10박 11일-690만원
11월 27일 출발 이스라엘&요르단 순례 10박 11일-495만원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our.co.kr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캄보디아 돈보스코학교 학생들을 위한 후원물품 모으기 안내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인류 가족의 사명으로 새겨진 형제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난한 아동들에게 후원물품 보내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기간: 6월 23일(금)~7월 30일(주일)까지

후원물품: 피부연고제(후시딘, 세레스톤-지), 칫솔세트(여행용), 생리대

접수: 각 본당 사무실

문의: 교구 평협 055·249·7114, 교구 평협 사무처장 010·3880·4675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인류 가족의 사명으로 새겨진 형제애”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난한 아동들에게 후원물품 보내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캄보디아 포이팻 돈보스코학교 학생들을 위한 후원물품 모으기 안내

★ 의약품(피부연고제) ★ 위생용품
 1) 후시딘 3) 치약 칫솔 세트(여행용)
 2) 세레스톤-지 4) 생리대

★ 수거 기간: 2023년 6월 23일~7월 30일(5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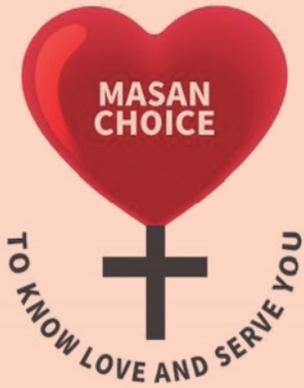
★ 제출 장소: 본당 사무실

★ 문의처: 본당 사무실 (055-249-7114)
 평협 사무처장 (010-3880-4675)

[후시딘] [세레스톤-지] [치약 칫솔 세트] [생리대]

천주교마산교구평협사무처(주)의회

마산 선택 주말을 소개합니다.



선택 주말은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말 동안 또래 청년들과 함께 자신들의 고민과 불안에 대해 나누고,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진정으로 속하는 것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체험하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본래의 ‘나’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54차 선택 주말 안내

일시: 8월 18일(금)~20일(주일)까지 2박 3일

장소: 마산 성혈 영성의 집(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옥계리 688)

대상: 20~30대 미혼 남녀 누구나

신청: 8. 2.(수)까지 QR코드로 접수

참가비: 12만 원/ 계좌: 경남은행 593-07-0022836 예금주 (재)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

준비물: 미사준비, 필기구,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개인컵, 마스크 등

문의: 010·3050·0830(윤가희 힐데가르트)

▶신청 접수 마감 후 참가 시간 및 일정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일정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후 안내)

20~30대 미혼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교회는 오늘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7월 23일)을 맞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1월 31일 삼중기도 후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했다. 매년 성 요아킴과 성 안나 축일(7월 26일)에 가까운 주일을 '노인의 날'로 지낸다는 메시지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 주제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라는 말씀으로 정했다. 교회는 이를 위해 기도문과 사목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모두가 노인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하느님은 우리가 생명을 지음 받은 때부터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계신다. 이 말씀 안에는 교회는 언제나 노인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제정되었고, 교회에서는 세대 간 연결 고리로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인 노인과 늘 함께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노인들의 사명은 기억을 생생하게 지키고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기에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은 온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노인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바람을 분명히 드러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3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교황 담화를 통해 사회와 각 개인의 삶의 기억이자 뿌리인 '노인'과의 유대를 확립하고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교황은 “노인은 미래 건설에 필요한 과거를 현재에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며, 조부모와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이 외롭게 느끼지 않도록 구체적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세계화된 세상에서 노인과 가족 관계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끊임없이 문제시되고 있다.”고 교황은 덧붙인다. 만약 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함께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에는 가족 자체를 해체시키고 파괴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아가 가족과 젊은이들은 자기 뿌리와 접촉할 기회와 젊음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혜와 접촉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공평하게 누구나 노인이 된다. 우리가 만나는 조부모님들과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곧 닥쳐올 나이'다. 우리가 사는 현 사회는 노화와 노인의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노인은 부정적 인식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언젠가 노인이 된다. 30년~40년 후 초고령 사회가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자세와 시선을 받으며 이 사회를 살아갈까? 우리 모두가 노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고 배워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시몬 드 보부아르(1908~1986)는 '노년' 서문 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인간일 것인가를 모르다면,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도 알지 못한다. 이 늙은 여자, 이 늙은 남자, 이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자 ... 그러면 단번에 우리는 말년의 불행을 더 이상 무관심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우리의 일이다.”

